

## 다시 빨라지는 코로나19 확산 광주·전남 하루 1만 명 넘었다

전국 신규 확진자 15만 명 돌파  
여수, 사이 흠뻑쇼서 66명 감염  
요양병원 등 대응 강화에 나서

여름 휴가시즌 절정기를 거치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여수 사이 흠뻑쇼' 관람객의 집단감염 등이 발생한 광주·전남에선 117일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섰으며, 광주에선 관련 사망자도 5명이나 추가됐다. 전국적으로도 4달만에 15만명을 넘어섰고, 이달 중으로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5159명, 전남에서 5863명 등 1만1022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섯 자릿수로 올라선 것은 지난 4월 15일 이후 117일 만이다.

광주에선 이날 사망자도 5명이나 늘어 누적

589명을 기록했다. 위중증환자 수도 광주 5명, 전남 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현재 전남에서는 지난 6일 열린 가수 사이의 여수 '흠뻑쇼' 공연에 다녀온 66명이 신속 항원검사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공연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 제출을 통해 이동 경로가 파악된 경우다. 사이의 여수 공연에는 2만 8000여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공연장에서 감염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사이 공연장을 찾은 2만 8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15만1972명을 기록하며 4달(119일) 만에 15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총 116건, 2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약 30% 안팎이 감염 취약시설에서 나와 전체 치명률에 영향을 준다고 방역당국은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중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과확방역'을 강조해온 방역당국은 요양·정신병원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역량과 인식을 높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환경을 개선한 것 등이 감염 차단에 중요 요인이라며 다른 시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전담대응기구를 통해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상황별 모의훈련,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 등 각 시설의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감염 취약시설 관리에 더욱 집중해서 철저히 하면 치명률을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거리두기 해제 등 일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을 중점 보호해야 한다. 감염 관리자들에게 책임·의무만 지우기 보다는 제안·요구에 대해 시설 측과 정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복절 앞두고 무궁화 '활짝' 10일 오후 8.15 광복 77주년을 맞아 광주시청 앞마당에 무궁화가 만개해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정부, 내년 예산 30조 삭감 예고 ... 국회의원들 '예산 전쟁'

SOC 사업 영남 편중 우려 커져  
광주·전남 지역 예산 확보 총력

정부가 내년 본예산 편성과정에 강력한 삭감을 예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예산전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재평가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 쟁기에 사활을 걸었고,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속에서 광주·전남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비 반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일부 신규사업이 선택되지 않으면, 계속지원도 어려워 진다는 판단에 따라 각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 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계속사업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와 지자체 신규·주요 계속사업을 들여다보는 2차 심의를 마쳤다. 또 현재 2차 심의 보류사업, 미결·쟁점사업, 소액사업을 검토하는 3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말께 심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일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국회의 시간'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이 과정에 기재부가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제출한 내년 예산을 놓고 대대적인 칼질을 하면서 삭감액이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역사이팅 사업과 관련한 초기 사업비를 비롯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GGM) 근로자의 공동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비 및 교육 지원비, 인공지능 집적단지 기반구축비를 비롯한 '제3순환 고속도로망 개설'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

업,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8082억) 조성 등 신규 사업 70여개를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각각 3조2155억원, 8조391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권교체와 영남지역에서 부산엑스포 등 대규모 이벤트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SOC 사업도 영남에 편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주요 예산 부처의 간부들도 영남에 편중돼 있다. 실제 기재부 예산실 간부 29명 중 영남 출신은 14명이며 호남은 절반이 7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 이동에 따른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광주·전남도와 실무 부서와 면담을 갖는 등 지역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기재부가 긴축재정, 사업집행이 늦은 SOC 사업에는 추가예산 금지, 신규사업 최소화 등의 원칙을 내세워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기 때문에 광주·전남지역이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변호사 영입인사	변호사 개업인사
<p>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김경근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새로 영입 하였습니다.</p> <p>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생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법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2022. 8. <b>법무법인 이우스</b></p> <p>대표변호사 김승휘, 서예련, 강성두 고문 오세욱 변호사 임선숙, 이병주, 고영석, 김정호, 장은백, 김석운, 김민석, 황흥택, 라 별, 문유리, 장예민</p>	<p>저는 이번에 정든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이우스에서 대표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p> <p>검찰에서 재직하는 동안 쌓은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p> <p>◇ 주요 학력 및 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대학교 법과대학</li> <li>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371</li> <li>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 제주지검 검사</li> <li>중국 칭화대학 정법대학 법문학자</li> <li>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li> <li>인천지검 부부장검사</li> <li>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li> <li>광주지검 부장검사</li> <li>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li> </ul> <p>대표변호사 김경근 올림</p>
<p>업무개시 : 2022. 8. 16</p>	<p>개업장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p>
<p>대표전화 : 062) 233-1600 팩스 : 062) 225-7800</p>	

###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바이탈뷰티  
Revitalizing Ginseng and Deer Velvet Ampoule  
25g

## 명작수천

진귀한 녹용과 인삼열매의 생명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는 궁극의 활력

제품 상담 080-023-5454  
구매 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